

국 어

1. 다음은 한국어의 특징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 ㉡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발달되어 있다.
 - ㉢ 한국어는 서술어가 문장 끝에 오는 어순이라 끝까지 들어야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 한국어는 음절 끝에 오는 자음도 음절의 첫소리와 같이 모두 제 음가대로 발음한다.
 - ㉤ 한국어는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모두 맞음

2. 다음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의하면 언어 자살은 ‘정체성 상실, 사회 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의 결여’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원인이자 결과이자 배경이다.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

- 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 ②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중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없다.
- ③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다.
- ④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 다음 <보기> 중 동일한 음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끼리 묶인 예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 | |
|------|-------|-------|
| ㉠ 굳이 | ㉡ 꿇더라 | ㉢ 뒷일 |
| ㉣ 무릎 | ㉤ 물난리 | ㉥ 잡히다 |

- ① ㉠, ㉣ ② ㉡, ㉤ ③ ㉢, ㉤ ④ ㉣, ㉥

4.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덕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기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으스스흔느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흐렘은

-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② 추상적 사물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외양과 움직임에 대한 묘사가 있다.
- ④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5. 다음 <보기>의 보고서 목차 중 내용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목 :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발전 방안

I. 세계화의 개념 및 사업의 배경

- 1. 세계화의 정의 및 유관 개념
- 2. 시대별 한국어 문자 변천사 ----- ㉠
- 3.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필요성 ----- ㉡

II. 한국어 세계화 사업의 실태

- 1. 정부 기관에 의한 세계화 사업
- 2. 민간 기관에 의한 세계화 사업 ---- ㉢

III. 기존 사례들의 문제점 검토

- 1. 예산의 부족과 전문가 확보의 미비
- 2. 한류 중심의 편향적 사업 계획
- 3. 장기적 전망이 결여된 사업 진행 -- ㉣

IV.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개선 방안

..(이하생략)..

- ① ㉠ ② ㉡ ③ ㉢ ④ ㉣

6.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 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

- 푸른 밤, 나희덕 -

- ① 화자는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 ② 사랑하는 임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시상을 촉발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수많은 사랑과 치욕을 경험했다.
- ④ 길 위에서 헤매는 ‘나’의 모습은 ‘나’의 심적 방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7.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기된 낱말들로 이루어진 것은?

- ① 몹시, 색시, 법석, 깎두기, 싹둑, 갑자기
- ② 깨끗이, 일일이, 간간히, 툼툼히, 소홀히
- ③ 선짓국, 자릿세, 전셋집, 장맛비, 베갯잇
- ④ 다정타, 어떻튼, 익숙지, 섭섭지, 생각건대

8. 다음의 법률용어를 순화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繫屬 : 심판 중일 때
- ② 決潰 : 일을 맡아서 처리함
- ③ 懈怠 : 기일 내에 하지 않다, 게을리 하다
- ④ 欠缺 :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9.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 기 > —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 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중에서-

- ①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일부 있었다.
- ②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 ③ 콜럼버스 이전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 ④ 만단족 인디언들의 한 마을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천연두 때문이었다

10. 다음 <보기>의 한자어가 가리키는 나이의 합은?

— < 보 기 > —

·장가(杖家)	·상년(桑年)	·이모(二毛)
·망백(望百)	·상수(上壽)	

- ① 281세 ② 301세 ③ 321세 ④ 341세

11. 다음 <보기>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단어는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로봇(robot)

㉡ 배지(badge)

㉢ 타겟(target)

㉣ 앰플(ampoule)

㉤ 리조또(risotto)

㉥ 캐시밀론(Cashmilon)

㉦ 바베큐(barbecue)

㉧ 심포지움(symposium)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보기> 중 ㉠ ~ ㉣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보 기 >
- 부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은 (㉡)와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 아무리 (㉢)한 인물이라도 좋은 동료를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 ㉠

㉡

㉢
- ① 反捕之孝

間於齊楚

開世之才

② 反哺之孝

看於齊楚

開世之才

③ 反哺之孝

間於齊楚

蓋世之才

④ 反捕之孝

看於齊楚

蓋世之才

13.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 보 기 >
- 뜻이 오르자 썰물에 갈바람을 맞으며 배는 조용히 미끄러져 나갔다.

- ① 명지바람

② 살바람

③ 높새바람

④ 하늬바람

14.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젊은V나이에V남편을V잃다니V참V안됐다.

② 올해는V비가V너무V많이V와서V과일V농사가V안돼V큰일이다.

③ 자식이V안되기를V바라는V부모는V없다.

④ 그렇게V독선적으로V일을V처리하면V안돼.

15. 다음 <보기>의 문장들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전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 < 보 기 >
- ㉠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 자연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16. 다음 시조 중 창작 계층이 가장 다른 것은?

- ①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變)홀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니쳐 우리 예어 가느고.

②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뉘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랴.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묻내 도하흐노라.

③ 한송정(寒松亭) 달 밝은 밤의 경포대(鏡浦臺)에
물결 잔 제
유신(有信)한 백구(白鷗)는 오락가락 하건마는
어떻다 우리의 왕손(王孫)은 가고 안이 오느니.

④ 이화우(梨花雨) 훗썩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싱각는가.
천 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17. 다음 중 <보기>를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보 기 >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의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내야 한다. 또한 빗물이라도 고이면 민물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며, 강한 햇볕으로 바닷물이 증발하고 난 다음에는 염분으로 범벅된 몸을 추슬러야 한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만이 조간대에서 살 수 있다.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뉜다.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이다. 그래서 조간대 상부에 사는 생명체는 뜨거운 태양열을 견뎌내야 한다. 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가장 아래에 위치한 하부는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선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은 불안정하고 척박한 바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높이에 따라 수직으로 종이 분포한다.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이들은 상당 시간 물 밖에 노출되어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패각과 덮개판을 꼭 닫은 채 물이 밀려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

- ①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② 조간대에 따개비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 ③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18. 다음 <보기>의 작품들을 창작 연대가 앞선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 아아, 날이 저문다. 서편(西便) 하늘에, 외로운 강물 우에, 스러져 가는 분홍빛 놀……. 아아 해가 저물면 해가 저물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 우는 밤이 또 오것마는, 오늘은 사월(四月)이라 과일날, 큰길을 물밀어 가는 사람 소리는 듯기만 하여도 흥성시러운 거슬 웨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업는고?
- ㉡ 잘 있거라, 째왔던 밤들아 / 창밖을 떠돌던 겨울안개들아 /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 가없는 내 사랑 빈집에 간헐네
- ㉢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 길은 한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 ㉣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 철업든 내 귀로 드렸노라 / 만수산(萬壽山)을 나서서 / 옛날에 갈라선 그 내 님도 / 오늘날 뵈을 수 잇었스면 / 나는 세상 모르고 사랏노라 / 고락(苦樂)에 겨운 입술로는 / 갇튼 말로 조금 더 영리하게 / 말하게도 지금은 되었건만 / 오히려 세상 모르고 사랏스면!
- ㉤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다시 누웠다 //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 ~ 20.)

< 보 기 >

- ㉠ 오늘날,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는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 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의 열쇠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아닐까?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이라는 것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하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 ㉡ 한편, 우리가 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는 것은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

- ㉢ 피와 뼈와 살을 조상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받아 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편협한 배타주의나 국수주의로 오인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 요컨대, 우리 민족 문화의 전통은 부단한 창조 활동 속에서 이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승

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은 형상화된 물건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한편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도 있는 것이다.

- ㉤ 원효는 당시의 유행인 서학을 하지 않았다. 원효의 ‘화엄경소’가 중국 화엄종의 제3조 현수가 지은 ‘화엄경탐현기’의 본이 되었다. 원효는 여러 종파의 분립이라는 불교계의 인습에 항거하고, 여러 종파의 교리를 통일하여 해동종을 열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승려들이 귀족 중심의 불교로 만족할 때에, 스스로 마을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배움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꺼리지 않은, 민중 불교의 창시자였다. 이러한 원효의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귀중한 재산이 아닐까?

- ㉥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 문화의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지나친 자기 학대에서 나오는 편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첫머리에서 제기한 것과 같이, 민족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것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왕성한 창조적 정신은 선진 문화 섭취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가 단순히 과거의 묵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순한 외래 문화의 모방도 아닐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일이다. 외래 문화도 새로운 문화의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뜻이 있는 것이고, 그러함으로써 비로소 민족 문화의 전통을 더욱 빛낼 수가 있는 것이다.

19. 위 글에서 ㉠ ~ ㉥를 논지 전개에 맞추어 가장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20. 위 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새로운 민족 문화 창조에 도움이 된다면 외래 문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② 거의 모든 문화가 서구화된 현실 속에서 전통 문제를 철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③ 민족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적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
 ④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전통을 이어받아야 한다.